

보도시점

2026. 7. 28.(화) 16:30

배포

2026. 7. 28.(화) 06:00

전국 권역별 농촌창업 리더 한자리에...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가 간 협력 본격화

- 전국 권역별 대표단 등이 참여한 「농촌창업 네트워크 권역 리더 워크숍」 개최
- 권역별 운영 현황·계획,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2026 농촌창업 네트워크 권역 리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창업가 간에 정보,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3월 18일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켰다.

출범 이후,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매칭*시키고 권역별 간담회·워크숍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창업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업가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강원·충북 권역(강원 지원센터), 경기·충남 권역(충남 지원센터), 호남·제주 권역(전남 지원센터), 영남 권역(경남 지원센터)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권역별로 추진했던 네트워킹 운영 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워크숍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현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농촌창업 네트워크’ 향후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이어 워크숍 기간 동안 창업가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권역별·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권역별 운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비롯해 식품, 관광, 로컬 브랜딩 등 분야별 심층 토론과 협력 아이디어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한 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 현장 견학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K-푸드창업사관학교, 기업공동사업 등 농촌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워크숍 이후 권역별 네트워킹·협력 과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연말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 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단순히 정보 교류를 넘어 창업가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창업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연결할 때 더욱 큰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서로의 현황·계획과 고민을 공유하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농촌 창업가 주도의 자율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 사진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정세환 (044-201-1584)



붙임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 사진



2026년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 및 창업 지원 설명회

일시 2026년 3월 18일(수)

